

새 책

▶세밀화로 보는 정부희 선생님 곤충 교실(정부희 지음·옥영관 그림)=한국의 파브르 정부희 선생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곤충 이야기다. ▷곤충은 어떻게 집을 지을까 ▷곤충은 어떻게 몸을 지킬까 ▷곤충은 어떻게 먹이를 찾을까 ▷곤충은 어떻게 짝을 부를까 ▷곤충은 어떻게 알을 둘까 등 5권으로 구성된 곤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더 쉽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생태 그림과 세밀화를 풍성하게 담았다. 보리. 권당 1만 6000원·세트 8만원.



▶나무를 구한 책벌레(고정욱 지음·허구 그림)=책벌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책을 좋아하는 산이가 나무들의 영계로 불러가서 혼쭐나는 이야기다. 책을 너무 읽어 수많은 나무들의 목숨을 앗아가게 한 죄라고 한다. 그러나 반전이 있다. 나무영계에 위험이 닥쳐오자, 산이가 책에서 얻은 지식이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액자소설 형식을 갖춘 판타지 동화로, 현실이 배경인 바깥이야기와 상상력으로 구성된 안이야기로 짜여져 독자의 재미와 흥미를 즐기게 한다. 산하. 1만2000원.



▶만약 우리 집이 지구라면(엘마니엘 피게라 지음·이세진 옮김)=거실과 부엌, 큰방, 작은 방, 화장실, 욕실... 만약 우리 집이 사실은 77억 인구가 살고 있는 커다란 지구라면 어떻게, 이 책은 지구를 '집'이라는 작고 익숙한 공간으로 압축해 빗대어 상상함으로써 거대하고 막연하기만 했던 지구를 조금 더 가깝게 만들어 준다. 지구가 만들어진 46억년 전부터 우주 탐사와 외계 행성으로의 이주를 꿈꾸는 가까운 미래까지를 지구과학, 생태학, 지리학, 기술 공학 등으로 살펴본다. 푸른솔 주니어. 1만2000원.



▶월든 숲에서의 일 년(헨리 데이비드 소로 지음·지오반니 만나 그림·정희성 옮김)=미국의 철학자이자 동식물 연구가 겸 수필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문명사회를 등진 채 월든 호숫가 숲속으로 들어가 오두막을 짓고 혼자 살았던 경험과 깨달음을 담은 책이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느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발견하는 과정을 그려낸 이 작품은 19세기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길벗어린이. 1만3000원.



▶어둠, 그리고 우주-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된다는 것(신현서 글·그림)=현직 초등학교 교사로서 '교육미술관 통로'를 운영하는 이현아 선생이 수업을 통해 발굴한 작품이 출간됐다. 캄캄한 '어둠'에 자신을 투영해 자의식에 눈을 떠 가는 과정을 담은 이 책은 저자인 신현서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수업 중에 쓰고 그린 글과 그림을 토대로 탄생했다. 신현서 학생의 글과 그림은 전국 유·초·중·고 교사들에게 소개돼 출간에 대한 문의가 쇄도할 만큼 교사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창리북. 1만1000원.



혼자였던 아이에게 동생과 친구가 왔다

일본 이와사키 치히로의 그림책 시리즈

수채화·수묵화 결합 화풍
아이들 섬세한 감정 담아

아이의 혼자 집에 있다. '금방 온다더니 아직이야'라고 독백하는 아이의 목소리가 방의 공기를 가른다. 엄마는 어디로 간 걸까. 마침 창 밖에는 꽃잎을 적시는 비가 내리고 있다. 날은 점점 어두워온다. 아이는 간절함을 실어 '엄마, 빨·라·와'라고 내뿜는다. 잠전에 따르릉따르릉 소리에 커튼 뒤로 숨었던 아이는 다시 전화벨이 울리면 무서워하지 않고 반겼다고 결심한다. 그림책 '비 오는 날 집 보기'는 채 15개도 안되는 문장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 침묵하는 말들 사이를 채우는 건 물기가 번져있는 듯한 특유의 그림이다.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애틋한 마음, 혼자 남겨진 어린이의 외로운 감정이 화면 안에 녹아들었다. 일본 그림책을 대표하는 작가인

이와사키 치히로(1918~1974). 2018년 12월 탄생 100주년을 맞아 우리말로 펴낸 '눈 오는 날의 생일'을 시작으로 2020년 여름 완간 예정인 그의 그림책 2~4권 '비 오는 날 집 보기', '아기가 온 날', '이웃에 온 아이'가 나란히 묶였다. 이와사키 치히로는 10대에 배운 스케치와 유화 기법, 20대에 익힌 서예 기법을 접목해 30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벌인 작가다. 수채화와 수묵화를 결합한 독특한 화풍을 보여주는 그는 평생 어린이를 작품의 주제로 삼았고 생전에 반전·반핵운동에 앞장섰다. '비 오는 날 집 보기'에 이어 '아기가 온 날'에 이르면 엄마가 집을 비운 자연이 드러난다. 엄마는 혼자 집에 있던 아이의 남동생을 안고 마침내 돌아온다. 흔히 동생이 생기면 맏이가 샘을 내거나 토라지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작가는 어른의 지레짐작보다 더



깊고 넓은 어린이의 세계를 그려냈다. 이 작품은 1970년 출간 이래 동생이 태어나는 어린이를 위한 선물로 꼽혀온 일본 그림책의 '고전'이다. '이웃에 온 아이'는 어린이의 우정을 다루고 있다. 주인공 치이의 이웃에 이사 트럭이 도착하고 어수선한 이삿짐 가운데 세발자전거가 눈에 띈다. 또래 친구를 사귀고 싶었던 치이는 개구쟁이 이웃집 아이와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림책 앞·뒤 표지를 펼쳐놓으면 결말이 보인다. 다케이치 야소오 기획, 엄혜숙 옮김. 창비. 각권 1만 3000원. 전선희기자

흑인만 보면 짖는 강아지에 비친 우리네 삶

오드랭의 '개조심! 인종차별해요'

얼마 전, 독일의 수도 베를린 지하철에서 남녀의 외국인 무리가 한국인 유학생 부부에게 '해피 코로냐'라고 비웃으며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외신이 전해졌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아시아 계에 대한 인종 차별 문제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독일에서는 축구 경기를 보던 일본인들이 쫓겨났고 뉴욕에선 한국인 유학생들이 길을 걷다가 갑작스레 얻어맞는 일이 벌어졌다. '혐오'라는 바이러스가 코로나19 사태를 타고 창궐하는 모양새다. 인간들만 그럴까. 동물의 세계를 통해 인종 차별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풀어낸 동화가 있다. 초등 3~4학년 대상으로 펴낸 프랑스 파리 태생의 작가인 오드랭 글, 클레망 우브르리 그림의 '개조심! 인종 차별해요'이다.

어느 날 마엘이 사는 집 앞에 온몸이 새하얀 강아지가 버려진다. 한달이 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마엘네 가족은 강아지를 입양하기로 한다. 강아지의 이름은 프랑스어로 '새끼 고양이'란 뜻을 지닌 마누. 마엘네 가족은 울음소리가 '야옹'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그렇게 불렀다. 귀여운 마누가 생기면서 마엘네 가족에 행복이 찾아드는 듯 했지만 뜻밖의 사건이 터진다. 주말마다 외할머니 댁에 가는 마엘네 가족을 대신해 친구 로랑이 잠시 돌보았던 마누가 흑인만 보면 그르렁 거렸기 때문이다. 로랑 엄마는 따짜고짜 소리친다. "인종 차별하는 개를 말기시면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이 학교에까지 알려지며 마엘은 '왕따'가 되어버린다. 동화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흑인



만 봐도 찾아대는 강아지 마누를 등장시켜 일상 속 차별의 순간을 보여준다. 흑인을 '까무잡잡한 악당들'이라 부르며 피해 다니는 옆집 오르파니 할머니, 흑인인 이웃과 마주칠 때면 모른 척 고개를 돌리는 앞집 엠마 아빠, 자신이 흑인이어서 늘 인종 차별주의자들과 부딪친다고 고백하는 로랑 엄마의 사연은 차별을 하는 사람, 당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이웃일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광노경 옮김. 라임. 9000원. 전선희기자

이 책 제니의 다락방

“비극이지만 희망이 된 오월 이야기”



'제니의 다락방'은 선교사 가정의 미국인 소녀 제니퍼가 겪은 오월 광주 이야기를 담고 있다.

1980년 5월 광주 양림동 선교사 마을. 허철선이란 한국명을 지닌 헌틀리 목사는 광주의 실상을 담은 사진을 찍어 집안에 마련한 암실에서 인화하고 아내는 기사를 써서 비밀리에 국내외로 전송했다. 헌틀리 부부의 글과 기사는 광주민주화운동을 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서 20년간 사역했던 헌틀리 목사는 1985년 미국으로 돌아갔다. 2017년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별세한 헌틀리 목사의 유골 절반은 유언에 따라 현재 양림동 선교사 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헌틀리 목사의 막내딸 제니퍼 헌틀리도 광주를 잊지 못했다. 40년 전, 아홉살이던 제니퍼는 '안네의 일기'처럼 당시의 목격담을 소녀의 시선으로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역사 동화가 나왔다. 이화연 작가가 옮겨졌고 김정혁 작가가 그림을 그린 '제니의 다락방'이다.

동화는 1980년 5월 초, 헌틀리 목사 가족이 제니퍼 큰언니의 졸업 공연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러 대전에 다녀온 후 이전과 달라진 광주 풍경을 묘사하면서 시작된다. 며칠째 광주 시내에선 시위가 벌어지고 군인들은 학생들을 잡아갔다. 헌틀리 부부는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들을 다락방에 숨겨준다. 제니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 때 학생들에게 물과 음식을 가져다주곤 했다. 어느새 제니퍼의 집에는 스무 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숨죽이며 악몽을 견뎌냈다.

5월 26일 밤부터 멈췄던 총성이 다시 들려왔고 그 시각 전남도청에서는 죽음을 각오한 시민군의 마지막 전투가 있었다. 기나긴 장례식이 이어졌고 광주는 부서지고 상처난 도시가 되었지만 소녀 제니퍼는 날마다 해가 뜨고 풀과 나무가 자라는 일상을 본다. 어른이 된 제니퍼는 말한다. “광주는 비극이면서도 압제와 차별 아래 놓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복돋워 주는 희망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책 말미엔 제니퍼가 쓴 영어 원문을 실었다. 하늘마음. 1만2000원.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합격 제9회 변호사 시험

강 문 찬
부 : (故)강병준·모 : 김평숙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영남대 로스쿨) 9기
(제주제일고등학교 48회)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경해장학복지재단

합격 제9회 변호사 시험

서 현 주
父 : 서익수(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母 : 오명녀(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장)
祖父 : (故)서태진 · 祖母 : 현월성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족일동

합격 제9회 변호사 시험

김 대 현
부 : 김창협(한진영어조합법인 대표)
모 : 고경희(유정수산 대표)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셋고모 가족일동

당선 제19대 제주특별자치도 경무회장

고 정 화

제19대 제주특별자치도 경무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경우등산회
회장 현 봉 석 외 회원일동